

<서평>

*Translating the Bible in Plain Language:
The Story of the Dutch Bijbel in Gewone Taal*
(Matthijs de Jong, UBS Monograph Series 12,
Miami: United Bible Societies, 2020)

강혜란*

1. 머리말

한 아이를 양육하는 기독교인 엄마로서 필자는 아이가 어릴 적부터 자기 전에 늘 성경을 한 장씩 읽어 주었다. 아이가 글을 깨우치기 전에는 성경 내용이 요약된 짧은 어린이용 동화성경을 읽어 주었지만, 글을 깨우치고 난 이후에는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매일 한 장씩 읽어 주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는 필자와 함께 성경을 한 절 한 절, 띄엄띄엄 같이 읽었다. 지금은 고등학생인 필자의 아이는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되어 자기 전에 스스로 한 장씩 읽는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되어 있어 스스로 성경을 꾸준히 읽어 왔던 아들도 종종 묻는다.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들이 많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심지어 성인들일지라도,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신학교 성서학 개론 시간에 주로 배우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고 묘사하는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언어적, 지리적, 시간적 차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 오늘날 청소년들이 주로 접하는 책들과는 사뭇 다른 단어와 문장 구조와 문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경전서 개역

*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음. 현재 영동교회 사모.
sh198012@yahoo.com.

개정판』을 공식 성경으로 예배와 교육 시에 사용하는데,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단어들이나 문장들의 많은 부분에 오늘날 젊은이들 특히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나 문장들이 많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이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상황임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필자는 알게 되었다.

네덜란드성서공회는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언어(in the language of their hearts)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ix쪽)는 확신을 가지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해하기 쉽게 일상 용어로 번역된 성경인 *the Bijbel in Gewone Taal*¹⁾(이하 BGT)을 2014년에 출판하였다. BGT의 번역과 함께 BGT의 번역 원칙과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 동일한 연도에 네덜란드어로 출판되었다. 이 책 *Translating the Bible in plain language: the Story of the Dutch Bijbel in Gewone Taal*은 2014년에 BGT와 함께 네덜란드어로 출판된 책을 영어로 번역하여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단행본 시리즈(United Bible Societies Monograph Series) 제12번째 단행본으로 2020년에 출판된 책이다. 영어판 출판 목적은 BGT라는 새로운 번역을 시도한 이유와 번역 원칙을 영어권에도 알리기 위함이었다(vii쪽).

본 책은 서문과 부록을 포함하면 약 240여 쪽에 달하며 본문은 약 200여 쪽이어서 읽기에 부담이 없는 분량이다. 저자인 Matthijs J. de Jong은 네덜란드성서공회 책임번역자로 일하면서 BGT의 번역에 참여하였다(209쪽). 그가 가진 전문성과 네덜란드성서공회가 기획 출판한 BGT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그의 경력을 고려할 때, 이 책은 신뢰도가 높다. 독자들은 신뢰감을 가지고 네덜란드성서공회가 어떤 목적과 번역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BGT를 번역하였는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책이 공헌한 점과 아쉬운 점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본 서평의 대상이다. 본 서평은 BGT에 대한 서평이 아니라, BGT의 번역 원칙을 소개한 책에 대한 서평이다. 따라서 BGT가 채택한 번역 원칙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오직 이 책이 BGT의 번역 원칙을 잘 소개하고 있는지, 이 책이 공헌한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2. 공헌한 점

- 1) 이 책은 BGT가 채택한 성경 번역 원칙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BGT가

1) 한글로 말하면 “일상 용어로 번역된 성경”(the Bible in Plain Language)이라 할 수 있겠다.

채택한 번역 원칙들을 그대로 한글성경 번역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로 상세하게 언급한다. 또한 성경 번역 원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네덜란드어를 알지 못하는 독자들도 BGT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번역되었는지 잘 알 수 있도록 일부 BGT 구절들을 영어로 번역²⁾하여 소개한다. 또한 다양한 번역 원칙들을 가진 여러 영어 번역본(NIV, NRS, ESV, CEV, GNB)과 함께 비교하면서 설명하기에 BGT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하였다. BGT의 번역 원칙을 이 책보다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자가 직접 BGT의 번역 과정에 참여하였기에 BGT의 번역 원칙을 자세하게 알고 있고, 그 장점과 한계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기존의 번역들과는 차별되는 BGT만의 특징적인 번역 방향을 성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2) 저자는 BGT의 번역 원칙과 번역 과정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 책의 저술 목적에 맞게 본문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가장 먼저 BGT의 번역 원칙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책의 처음부터 바로 글의 핵심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글의 구성은 독자들로 하여금 BGT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게 함으로써 이 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게 할 뿐 아니라, 이 책을 계속 읽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저자가 1장에서 소개한 바에 따르면, BGT는 네덜란드어가 모국어가 아니더라도 초등학생 수준의 어휘 능력과 문장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된 성경이다. 이 성경의 제목이 제시하듯이 BGT는 “일상 용어”로 번역된 성경이다. 성경 원문을 명확하게 대상 언어로 번역하고(명확성: clarification), 성경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이해할-수-있음: comprehensibility) 번역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일상에서 매우 사용 빈도수가 높은 약 3,800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고, 문장 구성을 분명하게 하고, 문장 단위들을 물 흐르듯이 배열한다. 정보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논리적으로 정보를 배열하고 지나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제1장에서 소개하듯이 BGT 번역 원칙에 있어서 핵심 개념이 “일상 용어”(plain language), “이해할-수-있음”(comprehensibility), “명확성”(clarification)인데, 각각의 개념을 각 장(제2-4장)에서 소개한다. 이와 같이 제1장에서 소개된 BGT의 번역 원칙과 목표의 핵심 개념을 이어지는 제2장부터 4장까지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BGT의 번역 원칙을 분명하

2) 영어로 번역된 BGT는 BGT-E로 표기되어 소개된다. 하지만 BGT 전문이 영어로 번역되지는 않았다. 저자가 예시를 들기 위해 선택한 구절들만 필요에 따라 영어로 번역되었다.

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BGT가 “일상 용어”(plain language)를 어떠한 방식으로 번역에 사용하였는지(제2장), 성경 본문을 모든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comprehensibility) 번역하기 위해 BGT 번역자들이 선택한 결정들은 무엇인지(제3장), 그리고 명확성(clarification)을 높이기 위한 BGT의 전략은 무엇인지(제4장)에 대해서 이 책은 상세하게 소개한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을 일반적이고도 전체적으로 다루고 난 다음 저자는 제5~6장에서 번역자들이 만나게 되는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다룬다. 먼저 제5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성경 번역에서 사용되어 온, 주로 기독교 공동체에서만 사용되는 신학적인 개념들을 담은 단어들(축복, 죄, 방주, 언약, 은혜, 공평과 정의, 천국 등)을 BGT는 어떤 신학적 주석적 근거를 가지고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상 용어로 바꾸었는지를 소개한다. 제6장은 은유, 직유, 환유, 과장, 의인화, 완곡법, 우화, 수사적 의문문과 같은 상징적인 언어들 어떻게 BGT의 번역 목적에 맞게 번역하였는지를 소개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명확성과 이해할-수-있음을 유지하면서도 의미의 풍부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번역하는 것이다(154쪽). 마지막 7장에서는 BGT가 독자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소개하면서 이런 여러 부정적인 평가 — 긍정적인 평가에 비하면 결코 많지는 않지만 — 에도 불구하고 ‘BGT는 과연 적절한 번역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책을 마무리 짓는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모든 이들에게 성경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읽을 만한 책으로 소개한 BGT의 번역 방침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목적 — 학식이 있는 자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함 — 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면서 책을 마친다.

이와 같이 저자는 이 책의 구성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책의 저술 목적에 부합되게 핵심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소개함과 동시에 BGT의 번역 원칙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을 염두에 두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책을 구성하였다. 이 책의 구성 또한 BGT의 번역 방침과 조화되게 명확하고 이해할 만하다.

3) 이 책은 BGT가 단순히 쉬운 단어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택을 뒷받침하는 튼실한 주석적 연구가 뒷받침되었음을 잘 보여 준다. BGT의 번역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분명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BGT 번역자들은 성서학자들의 주석적 결과를 철저히 참고하여, 학자들의 주석적 결과를 BGT의 번역에 반영하였다. 저자는 특별히 평소 일반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던 구절들을 본 책에서 소개한다. 예를

들면 BGT는 신학적 용어인 “하나님의 의”(롬 1:17)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한다고 보는 주석적 작업을 번역에 반영하였음을 언급한다(139쪽). 또한 시편 139:9의 “새벽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표현은 고대근동의 도장에 새겨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한다는 학문적 결과를 반영하여 “태양이 뜨는 것”으로 번역한 예를 소개한다(168쪽). 이렇게 평소 일반적으로 잘못 이해되어 왔던 구절들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성경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일조한다.

4) 저자는 이 책을 어려운 영어로 쓰지 않았다. BGT의 목표 즉 초등학생 정도의 어휘력을 갖춘 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네덜란드어 성경을 출판하자는 취지가 이 책에도 적용된 것이 아닌가는 생각을 한다. 물론 저자가 서문에 밝히지 않았기에 정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책에 사용된 영어의 어휘나 문장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비영어권 독자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BGT의 번역 원칙과 적용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BGT의 번역 원칙을 국제적으로 소개하고자 이 책을 출판한 네덜란드성서공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이는 BGT가 채택한 번역 원칙이 지지받아야 할 번역 원칙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한다.

3. 제안점

종합적으로 말해서 필자는 이 책을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었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지엽적인 아쉬운 점을 제안 형식으로 말하고자 한다.

1) BGT가 번역되고 출판되는 과정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들이 소논문 형식으로 출판되었고 그 목록들을 부록(Appendix 211-214쪽)에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소논문들은 전부 다 네덜란드어로만 출판되었기에 네덜란드어를 모르는 필자로서는 접근할 수가 없었다. 전체 내용은 아니더라도 핵심 초록만이라도 소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이 소논문들은 BGT 번역에 참여한 이들이 BGT 번역과 관련한 이슈에 관해 출판한 것이기에, 영어로 된 요약본이라도 소개되었더라면 BGT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좀 더 알 수 있는 통로가 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2)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장르와 연관이

있을 때가 있다. 특히 묵시문학에 사용된 상징적인 언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몰라 성경 읽기를 멈출 때가 있다. 저자는 제6장에서 일상 용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상징적 언어들을 BGT가 어떤 번역 방침에 따라 일상 용어로 번역하였는지를 소개한다. 하지만 그 예들은 거의 80% 이상이 시편에서 인용되었다. 그러나 많은 상징 언어들이나 이미지를 표현하는 단어들은 묵시문학에도 등장한다. 이 책에서 인용된 성경 본문들이 정리된 색인을 참고하면(223-229쪽), 묵시문학에서 저자가 인용한 구절들은 한 구절도 없다. BGT를 직접 읽을 수 없는 상황에서 BGT가 묵시문학, 예를 들어 다니엘 7-12장, 스가랴 9-14장, 특히 요한계시록 4-22장에 나타난 상징적인 언어들을 어떠한 전략과 방식으로 명확성과 이해할-수-있음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소개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3) 이 책의 저자가 BGT의 번역에 참여하였기에 BGT의 번역 원칙을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이런 밀접한 관련성이 때로는 BGT에 대한 중립적인 평가를 약화시킨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런 부분은 주로 상징적인 언어의 번역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상징적인 언어의 번역을 다루는 제6장에서 저자가 소개한 BGT-E의 몇몇 구절은 독자인 필자가 동의할 수 없는 번역인 경우가 있었다.³⁾ 하지만 저자는 이런 예들에 대한 설명에서, 필자와 같은 독자들이 BGT-E의 번역을 수긍하지 못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BGT-E의 번역이 아주 잘 된 번역이라는 어조로 글을 기술한다. 이러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BGT-E의 번역을 소개해 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4)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이 책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한계와 관련이 있다. 이 책에 소개된 BGT-E는 BGT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저자도 BGT-E를 작업할 때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듯이, BGT-E가 BGT를 온전히 표현해 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는다. 이것은 네덜란드어를 모르는 독자인 필자가 해결할 수 없는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신 10:16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다(circumcise your heart)는 표현을 BGT는 “마음을 열다”(open up your heart)로 번역하였다(160쪽). 이 구절은 “이미지를 단순화시킨다”는 BGT의 번역 원칙에 따라 번역된 것이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마음에 할례를 행하다”를 “마음을 열다”로 단순화시켰을 때, “할례”라는 개념 속에 내재된 “제거”의 의미는 상실된다.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저자가 염두에 두고 언급했으면 좀 더 중립적인 소개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시편 17:8의 “눈동자 같이 나를 보호하소서”를 “바로 당신의 자녀인 것처럼 나를 보호하소서”로 번역한 것도 이견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164쪽). 이 외에도 이와 유사한 예들이 시편 23:1; 욥 29:6의 번역 소개에도 나타난다.

4. 나가며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BGT와 같은 번역 원칙으로 번역된 성경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한국의 대부분 교회들이 성경통독 훈련을 교인들에게 권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 특히 초신자들이나 초등학생들은 통독에 도전했다가도 얼마 못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용어들이나 낯선 단어들을 만나면서 통독의 흥미를 잃고 마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 책을 읽는 내내 필자는 BGT를 한글로 번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BGT와 같은 성경이 한국말로 된 것이 있으면 자라나는 초등학생, 청소년들이 성경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여겨졌다. 하지만 네덜란드어를 알지 못하는 필자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꿈이기에 그 차선책으로 대한성서공회나 성서학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대한성서공회도 BGT와 같이 초등학생 정도의 어휘력을 가진 이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성경의 내용과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한글성경 번역본을 출판해 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 *Translating the Bible in plain language: the Story of the Dutch Bijbel in Gewone Taal*은 성경 번역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초교과적으로 작업하는 공식적인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성경 번역자들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여러 성경 번역자들, 목회자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성경 번역은 모국어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BGT가 번역되는 과정과 번역 원칙이 적용된 방식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통해서 한글 성경 또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번역하면 성경이 더욱더 일반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주제어>(Keywords)

성경 번역, 일상 용어, 명확성, 이해도.

Bible Translation, plain language, clarification, comprehensibility.

(투고 일자: 2021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1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1년 10월 21일)

<Abstract>

***Translating the Bible in Plain Language:
The Story of the Dutch Bijbel in Gewone Taal***
**(Matthijs de Jong, UBS Monograph Series 12,
Miami: United Bible Societies, 2020)**

Helen Kang
(Young Dong Presbyterian Church)

I recall when I first became a mother, that I was very eager to know how I could teach my child to read the Bible all his life. I think the Bible Society for the Netherlands and Flanders had the same worry as myself so that it published the *Bijbel in Gewone Taal*(BGT) for everyone who wants to read the Bible and to understand it. The book *Translating the Bible in plain language: the Story of the Dutch Bijbel in Gewone Taal* is written by Matthijs J. de Jong, and it introduces BGT, and its translation process and principles. The main translation principle of BGT is using plain language in order to achieve comprehensibility and clarification.

This review mentions four contributions of this book and four suggestions. First, as its contribution, this book clearly describes the translation principles and process with specific examples from BGT. Moreover, this book uses BGT-E (English version of BGT) as an example in comparison with other English versions such as NIV, NRS, ESV, CEV, GNB, and so on. This comparison helps to understand how clearly BGT is translated. Second, this book is systematically composed so that the table of contents itself shows what the book focuses on. Chapter 1 introduces translation principles. Chapters 2~4 deal with three main ideas, which are plain language (chapter 2), comprehensibility (chapter 3), and clarification (chapter 4). Chapters 5~6 deal with specific situations which Bible translators often confront. Chapter 7 introduces readers' response to BGT. Third, this book points out that BGT reflects recent biblical exegetical results, some of which are not familiar to ordinary Christians. Fourth, the author of this book did not use difficult words. This attitude matches well with the principles of BGT.

However, there are some points that I wish were added in the book. First, articles introduced in Appendix 211-214 are not accessible to readers who do not

know Dutch. It would be better if abstracts of each articles had been offered. Second, examples of figurative language mostly came from the Psalms and not from the apocalyptic books which have many figurative languages that are hard to understand. I became curious about how they are translated in the BGT. Third, the author seems to lose neutral position in evaluating BGT in some cases. There are some translation examples in this book that I cannot agree with but that the author has a very positive attitude to. Fourth, this book use examples not from BGT but from BGT-E. I wonder how exactly BGT-E reflects BGT.

After reading this book, one will certainly feel the necessity of such kind of translation as BGT. This book *Translating the Bible in plain language: the Story of the Dutch Bijbel in Gewone Taal* should be read especially Bible translators.